

# “25년간 1700배 성장...성장스토리 계속된다”

박현주 회장, 임직원들에 메시지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 노력하자”  
새 시장 공략·글로벌 투자 의지도



박현주 미래에셋금융 회장

7월1일 창립 25주년을 맞은 미래에셋금융이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성장을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 회장이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도 미래에셋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되어야 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힌 것이다. 증권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 공략과 글로벌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인재 중시와 고객 동맹 실천

미래에셋금융은 박 회장이 1997년 7월 자본금 100억 원으로 설립한 미래에셋벤처캐피탈에서 출발했다. 그해 8월 국내 첫 전문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투자자문을 설립하고, 1998년 간접투자상품인 뮤추얼펀드 ‘박현주 1호’가 약 90%의 수익을 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9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2005년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을 각각 설립했다. 지난해 기준 미래에셋금융의 자기자본은 17조3000억 원으로, 25년 동안 1700배 성장한 셈이다. 고객 자산 합계는 771조7000억 원, 연금자산은 총 51조9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말 대우증권 인수해 국내 리딩 증권사로 거듭났다. 합병 4년 만인 2020년에는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에 이어, 지난해 2분기 자기자본 10조 원을 달성하며 진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2003년 국내 첫 해외 운용법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설립을 필두로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선진 자본시장까지 뻗어나간 결과 현재 전 세계 15개 지역에 3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라는 경영이념을 토대로 인재를 중시하는 조직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맹을 실천하고 있는 전 세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언제나 신뢰를 보내주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자”고 했다.

### ●새 MTS 서비스 선보여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를 선보이는 등 개인투자자와의 접점을 늘려왔다. 그 일환으로 6월30일 새로운 MTS(엠스탁·M-STOCK)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능별로 나눠져 있던 3개의 앱을 하나로 통합한 버전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전 세계 투자 상품을 원터치로 연결해 24시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낮과 밤의 시간 변화에 따라 화이트와 다크 모드 등 디자인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매해 가능한 시간에 맞게 최적화되는 홈 화면 등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돕는다. 고객의 모든 금융자산과 계좌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고, 관심 있는 뉴스나 정보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쉽게 확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은 미래에셋금융이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성장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뷰 전경.

인할 수 있다.

투자에 도움이 될 콘텐츠도 강화했다. 인공지능에 한해 볼 수 있던 엠클럽 서비스를 앱 이용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고객들의 분석 데이터를 예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기업들의 ESG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ES

G 평가지표 데이터,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위험도 등을 자체 AI기술로 분석해 제공한다. 인공지능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대표는 “이번 새 MTS 오픈은 압도적인 1등 금융 투자 플랫폼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최고의 고객 경험을 드리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ESG경영 강화’ 팔 걷었다...롯데카드, UNGC 가입

(유엔글로벌compact)

기업·사회 성장 목표 UN산하기구  
조직원 대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롯데카드가 최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UNGC(유엔글로벌compact)에 가입했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0년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다. 현재 전 세계 160여 개국서 1만 900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원 롯데카드 대표는 “이번 가입은 UNGC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

고, ESG 경영의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매년 UNGC에 보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사회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롯데카드의 UNGC 가입을 환영한다”며 “UNGC의 일원으로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달성에 기여하고, ESG 경영활동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KB국민카드, 티맵모빌리티, 롯데면세점과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 참여 등 데이터 부문 상호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들이 보유한 소비 데이터, 쇼핑 데이터, 검색 데이터, 교통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결합해 초개인화 마케팅과 신사업 발굴 등에 활용한다. 양질의 모빌리티·유통 관련 빅데이터 확보는 물론 참여기업 간 데이터 융합과 협력으로 데이터 경쟁력 제고와 상호 시너지 창출을 노린다. 정정욱 기자

조직원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와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UNGC 가입증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카드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5일(화) 음력: 6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뜻하지 않았던 관재수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한다. 주변을 깨끗히 청소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집수리·이사도 안 되고 혼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매사가 풍선처럼 결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현재는 어렵지만 궁즉통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기세가 등등해지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동북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것 안 된다. 뱀이 양을 만나니 추진력이 대단하다. 물불을 안 가린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노력하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입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운이 좋으면 예능이나 문학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잘못 풀리면 유혹의 손길에 넘어갈 수도 있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해야 한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었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지도 않은 상측의 운도 있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타의 시선이나 관습에 개의치 않는다.

### 신한은행, 창업 40주년 특판 예·적금 출시



신한은행이 창업 40주년을 맞아 특판 예·적금(사진)을 내놓았다. ‘신한 40주년 페스타 적금’은 주 단위로 납입하는 만기 10개월 자유 적금으로 매

주 납입 여부에 따라 최고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 월 최고 3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10만 원 한도로 출시한다. 매주 꾸준히 납입한 고객에게는 10주마다 추첨을 통해 최대 4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하는 톨렛 이벤트도 연다.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최고 연 3.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1년제 정기 예금이다. 최고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1조 원 한도로 출시된다. 7월 한 달 간 40주년 특판 예·적금이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신한은행 쉐 카레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지급한다.



하나금융 ‘같이(가치) 에듀 2기’ 멘토 발대식. 사진제공 하나금융

### 하나금융 ‘같이(가치) 에듀 2기’ 사업 실시

하나금융이 자사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통해 ‘같이(가치) 에듀 2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의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자자원봉사지원센터,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범대 대학생과 퇴직교원을 멘토로 모집 선발했다. 11월30일까지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1대 1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를 포함한 전국 아동복지시설 거주 및 이용 청소년 약 250명, 지난해 9월 실시한 ‘같이(가치) 도시락 1기’ 대상자 중 약 50명이다. 선정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함께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ESG 경영 실천 의지가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의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지게 됐다”며 “기수를 거듭하는 장기적 학습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오늘의 날씨			5일(화)		
서울 30/60	인천 30/60	춘천 30/60	25 34	25 31	24 33
강릉 20/20	대전 30/60	전주 30/60	25 31	25 34	24 33
광주 30/60	대구 30/60	부산 60/30	25 32	25 33	24 30
창원 60/30	제주 60/30	지역	24 32	25 30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